

◆ (주) 에스티엑스 제1공장

쌍용중공업(주) 창원공장이 2001.5.17자로 (주) 에스티엑스 제1공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외동정

동아시아 원자력 전망

대만 정부가 지난해 10월 대만의 4번째 원전 건설을 중단했을 때 반핵 활동가들은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반핵 캠페인의 역사적 전개를 보게 됐다고 열렬히 환영했다. 그러나 지난 2월의 건설재개 결정과 일본의 신규원전 건설 승인 등으로 환경단체의 승리는 실패로 돌아갔고 원자력 산업계는 신속히 회복했다. 이제 동아시아는 원자력산업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됐다. 국제원자력사업자연합(WANO)의 전략국장 스티브 키드는 “이 지역은 신규 원전이 현재 건설되고 있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열정의 근원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본, 한국, 대만은 지하자원이 거의 없어 에너지를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바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전체 전력생산의 36%, 대만은 25%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 수요량은 경제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원자력산업계는 중국을 미래 원자력 수요의 근원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는 현재 2개의 원전이 가동중이며 4개가 건설중인데 2004년경 이들이 공급하는 전력은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환경악화를 걱정하는 고위 중국 관리의 향후 20년간 약 20배의 수요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력 과잉공급으로 이러한 논란이 힘을 잃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그러한 증가 가능성이 많다고 믿고 있다. 원자력 재도약의 희망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최근 에너지 정책으로 더욱 커졌다. 원자력 공학자의 복귀와 함께 원자력은 지난 세기의 기술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키드는 말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원전 건설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몇 가지 난관이 있다. 이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아 적당한 원전 부지를 찾는 일이 어렵고 따라서 원전건설 반대 캠페인이 지역별로 매우 효과적으로 전개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중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아직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원전 필요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루어

진 것 같다. 따라서 원자력 확장의 주요 이슈는 일본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일본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인식이 몇 차례의 원자력시설 사고로 무척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일본 정부는 원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대중의 반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의 가장 큰 전력회사인 동경전력은 자사의 한 원전에 MOX 연료를 사용할 계획을 주민 반대 투표로 연기했다. 또한 일본 전력 시장의 경쟁도입은 신규 원전 건설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점점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사업자와 안전규제기관이 원자력 사고를 은폐할 준비가 되어 있고 부적절한 안전기준을 묵인하는데 능숙하다는 비판을 극복해야 한다. 신뢰의 중요성은 지난 3월 대만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다시금 확인됐다. 대만전력은 사고 보고를 지연시켰고 이후 최악의 사고로 공식 발표했다. 대만 녹색당은 4번째 원전 건설 반대운동이 아직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건설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완공될 때까지 건설 중단 반대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대만 녹색당은 말했다.

〈<http://news.ft.com/ft/gx.cgi/ftc?pagename=View&c=Article&cid=FT3> 2001년 06월 13일〉

